

# 광주교육청, 사학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공무 직원을 포함하는 규칙을 개정했다.

공립과 달리 자체 인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법인들이 광주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교육청은 3일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에 기존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했다.

## 교육행정 청렴·신뢰도 향상 위해 개정

### 사학법인 정관에 개정규칙 준용 여부 관심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알선·청탁, 직무 관련 영리행위, 예산 목적 외 사용, 공용물 사적사용, 사적 노무 요구 등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또 직무 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제한, 사적 이해관계 해당과 직무 관련자 거래시 신고 의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거부 근거 조항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광주 전체 교직원들이 따를 수 있는 바람직한 행위 기준을 정립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광주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자체 인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법인들이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해 법인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광주교육청이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광주지역 국공립·사립학교 행정실장 270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별다른 이견은 나오지 않았다.

광주교육청 청렴총괄팀 조미경 서기관은 "교육행정의 청렴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달라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겠다"며 "사학법인이 정관 개정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광주 연립주택서 불·60대 숨진 채 발견

3일 오전 11시11분께 광주 서구 한 연립주택 5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3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거실에서 집주인 A(60) 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주택 59.5㎡도 모두 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지난해 이주여성과 이혼한 뒤 우울증을 앓아 왔으며, 홀로 초등학생인 딸을 돌보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화 여부 등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마트서 수입맥주 상습 절도 30대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대형마트에서 맥주만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7월17일 사이 광주 광산구 한 대형마트 가공식품 코너에서 9차례에 걸쳐 수입맥주 40병(22만원 상당)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수입맥주에 도난 방지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 "퇴근한 뒤 수입맥주를 즐겨마셨다. 목이 말라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소량의 식료품만 바구니에 담아 계산하거나 맥주만 훔쳐 마트를 빠져나오다 보안요원에 걸림을 잡혔다.

임형택 기자

## 직장동료 살해하려한 60대 붙잡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에 정읍시 수성동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 A(52)씨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아내와 사별했는데,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A가 자꾸 이야기를 꺼내 화답에 그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40대 경찰관 실종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현직 경찰관이 실종된 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50분께 달성군 다사읍 한 건물 옥상에서 달성경찰서 소속 A(43)경사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47분께 "A경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을 진행해 왔다. A경사는 실종 당일 집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 귀갓길 여고생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

귀갓길 여고생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40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17)양을 도로 옆 풀숲으로 끌고 가려다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다.

B양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43분께 발행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골프 연습장 주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쏘 제압했다.

조인호 기자



김장봉사 위한 청각적업 담당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김복실) 회원 40명은 지난 8월31일 공동기금 마련을 위해 청각(6포대) 작업을 실시했다. 담당농협 농가주부모임은 매년 연말 불우시설 김장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달 1회이상 마을회관 순회 봉사를 하고 있다. 담당=박종영 기자

## “교사·여고생 성관계 사건, 철저한 수사로 책임 물어야”

### 피해 가족·변호인 ‘성적 조작·추가 피해 여부’도 규명 촉구

광주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한 부모 가정의 1학년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 가족과 변호인이 철저한 수사와 제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폭행 피해 학생의 법률 대리인 김재현 변호사는 3일 “경찰과 교육청은 면밀한 수사·감사로 성범죄 동기·경위의 추가 피해 여부를 밝혀 교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 학생은 신체 접촉에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기간제 교사의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라며 “학생의 의사에 반했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사는 학생의 가정 형편과 심리를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청소년의 상황과 교사 지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교사가 평소 학생의 끼니를 챙기고 아플 때 약을 사다준 점, 카드를 건네고 용돈을 준 점, 방학 전 학생 집 인근에 원룸을 빌려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점, 편지를 써달라고 강요한 점 등으로 미뤄 의존·신뢰도를 높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환심을 사기 위해 1학기 기말고사 특정 과목 성적을 조작한 의혹도 받는다”며 “학생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객관식 문제의 틀린 답을 본인이 수정했고, 서술형 문제를 고치게 강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는 답안지(OMR 카드)를 수정하기 위한 테이프를 교사가 직접 시운 뒤 학생을 불러낸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교와 교육당국이 미온적 대처를 한 만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술 취한 교사로부터 애정표현을 담은 연락을 받았고, 차량에 태워주겠다고 접근했다”는 이 학교 다른 학생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며 “성 비위 관련 진수 조사와 이 교사가 과거에 제적됐던 학교 학생들도 조사해 책임을 묻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광주교육청은 조만간 해당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성 비위 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성적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인호 기자

**경찰, 성비위 고교 교사들 조만간 소환**

**학생·상담사 청구 마무리**

광주 한 고교의 성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피해자 진술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A 고교 교사들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여경 중심으로 진담담을 구성해 교사들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180여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자 진술을 들었다.

이들은 광주교육청 진수 조사에서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학생들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피해 학생들을 처음 상담한 상담사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피해 학생의 진술과 상담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경찰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들의 소환 조사도 신중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1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진술 청취가 어느정도 마무리 돼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들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 할 계획”이라며 “조사를 받을 교사들의 규모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교사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은홍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명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구묘화사업

##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업인 등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명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피해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구묘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